

# 印度 뿌네서 '담마미트라' 품수식

## 삼귀의 봉송속 포교사 7명 탄생

스님의 수가 적고 승가가 체계적이지 못한 인도, 특히 마하라슈트라 지방에서 포교활동을 하며 나름대로 불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담마짜리(Dhamma char), 말 그대로 재가법사들이다. 그리고 담마짜리를 도와 연락망을 형성하고 일반 신도들의 애경사를 챙기며 포교와 복지활동을 돕는 담마미트라(Dhammamitra)가 있다. 우리말로 전법사, 포교사 등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16일 인도의 서부 도시인 뿌네에서 한국 조계종의 '포교사 품수식'과 유사한 '담마미트라 품수식(受式)'이 거행되었다. 뿌네의 암베드카르 칼리지 운동장에는 300여명의 불자들이 모여 임시 법석을 마련하고 새 담마미트라 탄생식을 지켜보았다. 지난 1년간

일주일에 한 번씩 교리강좌와 참선교실에 참석하며 예비 교육을 받아 온 7명의 불자들이 불법을 널리 펴고 대중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엄숙히 계를 받았다. 수계식은 예경문과 삼귀의, 5계 봉송 등의 순서로 시작되었고, 인도 전통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찬불가 중창이 있었다. 아디티야보디(Adityabodhi) 법사의 법문에 이어 새로 담마미트라가 될 7명의 불자들은 차례대로 부처님전에 나아가 꽃과 향을 바치고 5계와 담마미트라 의무를 봉송하며 이를 평생 지켜갈 것을 서약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삼계의 불자모임 예르와다(Yerwada) 센터를 이끌고 있는 비르그쉬(Veergoshi) 법사는 새 담마미트라들에 대한 당부의 말과 더불어 이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님전에 기원했고, 신도들이 새 담마미트라들에게 꽃을 던지고 축복하며 막을 내렸다. 담마미트라가 되면 5계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규칙적인 참선 수행, 일반 불자들을 위한 봉사, 교단과 신도들 사이의 연락 등의 임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16일 인도 뿌네에서 열린 '담마미트라 품수식'.

### 불자 애경사 챙기며 포교·복지활동

### 전국에 1500명... 3년뒤 재가법사 승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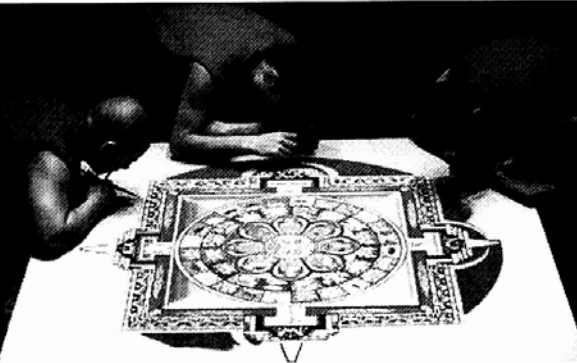
한다. 또한 담마미트라 수계는 인도 불자들의 주체적인 신행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며 '제 2의 탄생' 과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비르그쉬 법사는 설명한다.

담마미트라 중에서 불법에 더욱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3년간의 활동 평가를 통해서 담마미트라가 될 수 있다. 현재 인도 전역에 걸쳐 약 1500여명의 담마미트라와

1000명 가까운 담마미트라가 활동하고 있다. 탄생부터 결혼,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의식이 종교행사이며, 종교가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이곳 인도에서 담마미트라와 담마미트라라는 불자들의 신행을 돕고, 불법을 펴는 대들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 뿌네 = 이지는 통신원

인도불교 정기 사무국 = (02)745-7799



◇'티베트 하우스' 스님들이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만다라 제작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 美서 만다라 제작 시연

## 티베트 하우스, 9·11테러 추모법회도

지난해 9월 발생한 미국항공 테러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만다라 제작 시연회'가 열려 화제다. 뉴욕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 산하 '티베트 하우스'에서 수행하고 있는 4명의 티베트 스님들이 11일부터 27일까지 국방성 인근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전시실에서 9·11테러 희생자 추모법회와 함께 만다라

제작에 착수했다. 만다라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롬상 텐진 스님은 "1천 3백여 년 동안 영적인 수행과 의식을 생활지침으로 하여 살아온 티베트인들은 국가 간 대립이나 집단간, 개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불가항력적인 난국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만다라를 그려왔다"며 "이번 시연회를 통해 회

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가족의 맺힌 한을 풀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시연회는 오전 10시 및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추모법회와 함께 만다라를 제작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근무하는 아시아 예술 분야 큐레이터들이 나와 제작 과정과 그 의미도 설명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방성 내 명성동호회인 '평화방패클럽'(Peace Shield Club) 회원들이 행사 도우미로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 불교, 개발, NGO: 자신이 변하지 않는 세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신념이야말로 아시아 풍토에 자리잡은 지혜가 아닐까. '개발'이란 우리 사회와 개인이 그 본래의 바람직한 자세와 생활방식에 눈뜨고, 자연 및 그 사회, 개인과의 공생을 위해 지혜와 자비를 갖고 인간성을 발현하고 있는 물질양면의 자발적인 변화에 실천이다. 공생사회의 전망을 담은 이 책은 제1부 개발의 사상개발과 불교, 제2부 개발과 농촌, 도시(사회)개발에 참여하는 태국의 개발, 제3부 개발과 NGO(태국 NGO활동과 농촌사회) 등으로 구성. 태국 개발에 배운 공생의 지혜란 부제를 단 이 책은 니시가와(西川潤), 노다(野田眞理)의 공저로, 일본 신평론(新評論) 펴냈다.

• 불교와 한어어휘: 독자들이 불교와 한어어휘의 상관관계를 쉽고 고도 깊게 이해하도록 했다. 학술적인 연구성과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상용적인 불교용어를 정확히 해석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불교적 어원을 밝혔다. 양호홍(梁曉虹) 지음, 대만 불광(佛光)문화사입유한공사 펴냄.

### 중국의 도교성지인 무당산(武当山)에서 불교가 흥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야호신문(雅虎新聞)'은 지난 12월 호북성 무당산에서 발견한 장편서사시 <달마실권(達摩實錄)> 즉, <달마전>은 일찍이 무당산에서 불교가 흥성했다는 증거라고 7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무당불교 연구자인 이정강(李征剛)씨는

### "도교 성지서 불교 흥성" 중국 야호신문

"중 1만자로 구성된 이 <달마전>은 법씨가(范氏家)의 구두문화를 수집 정리하면서 발견됐으며, 달마조사의 전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칼라차크라 대법회 21일부터 印度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21일부터 9일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인도 부다가야에서 칼라차크라 관정(灌頂) 대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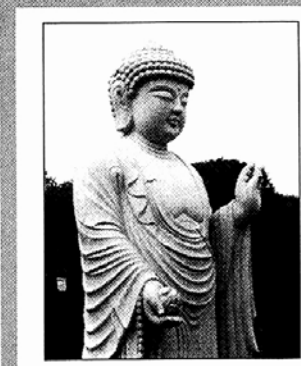
### 1985년에 이어 열리는 이번 관정법회는 티베트 난민공동체를 비롯한 부탄, 네팔, 라다크, 티베트 등지의 불자 및 티베트인과 유럽과 미국의 불자 등 20여만명이 동참 예정이다.

이번 법회를 위해 달라이 라마는 이미 지난 9월 부다가야에 도착했으며, 5만여명의 대중이 집결

### 이 씨는 수년간 무당 민가(民歌)를 수집할 당시, 중국신화에 서 천지개벽의 시조인 반고(盤古)를 돕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로 가득한 1부 600여 행의 장편서사시를 발견했다. 그후 무당산 핵심구역인 북부봉일대에서 석불사, 관음당, 불조묘(佛祖廟) 등 다수의 불교 건축물을 비롯 천문산(天門山) 일대에서 석불상 70여 구를 발견했다.

해 있는 상태다. 티베트의 님파와 궤족과도 이번 법회에 맞춰 특별기도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도내의 티베트인들은 13-16일 중국 주류 총리의 인도 방문과 동시에 곳곳에서 대중집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측을 자극해 긴장이 고조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특허** "BBS불교방송 (길을 찾아서) 줄헌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 호)

**승복 · 법복 · 누비 · 바랑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 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특징: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음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 ◆ 추동복: 촉감이 매우 좋고 땀이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 편함.
- ◆ 누비: 고급 원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 ◆ 장삼: 추동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움을 더한 장삼.
- ◆ 가방: 이중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분	판매가
추동복	저고리 비치, 조끼	남·여	150,000
		남·여	130,000
	동방	남·여	120,000
		남·여	190,000
누비	두루막	남·여	160,000
		남·여	130,000
	보온복	남·여	70,000
장삼 (조계종 태고종)	남·여	220,000	
	중	28,000	
승가방	중	23,000	
	소	30,000	

※ 차이나, 라운드, 신도복 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지역 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본사: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F 302호  
전화: 053)764-4114 H·P: 011)9850-4400

**지원 섬유**